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
고유가 시대, 유류소비 절감 및 서민 부담 경감
더불어민주당이 대중교통비 50% 환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물가안정대책팀’(팀장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7월 11일 (월) 10시 40분부터 사당역 인근 경기도 버스라운지를 방문하여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한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에 실질임금까지 낮아지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통근통학과 직결된 휘발유와 경유 값이 천정부지 치솟으며 유류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으나 여전히 기름값은 잡히지 않고 있으며, 대중교통 카드사용 소득공제를 상향 조정 계획을 밝혔으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물가안정대책팀’은 지난 6월 15일 농협 하나로마트 방문, 6월 21일 주유소 방문, 7월 1일 구내식당 현장방문에 이어 네 번째 민생현장 방문으로 경기버스 라운지(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3, 금강빌딩 4층)를 찾아 실질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하여 김성한 물가안정대책팀장, 김병주, 김한규, 김한정,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병훈, 이수진(비례) 의원(가나다 순) 등은 대중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함께 간담회를 갖고, 유류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서민 부담은 경감하는 일석삼조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국민들이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50%를 환급해주는 ‘반값교통비지원법(일명 나의해방일지법)’의 입법 추진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제를 하반기 원구성 즉시 신속히 입법화하는 등 고유가 극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 7. 11.

[참고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안)**

○ 취지

-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에 서민들의 생활비부담이 크게 증가. 독일은 최근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담은 '9유로 티켓' 정기권 도입으로 대중교통비를 적극 지원하여, 고유가 시대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고유가대책 일환으로 대중교통 카드사용 소득공제율을 40%→80%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밝혔으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 대중교통 전환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

○ 일시 및 장소 : 7월 11일(월) 10:40~11:20, 사당역 경기버스라운지(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3, 금강빌딩 4층)

- 행사주관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 경기도청

○ 참석 대상(안)

- (당) 박홍근 원내대표(민생우선실천단장), 김성환 정책위의장(물가안정대책팀장), 김병주, 김한규, 김한정,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병훈, 이수진(비례) 의원
- (운송사업자, 시민단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행철 전무이사,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김철관 위원장,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대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조은아 활동가
- (지자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 주요 내용 :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지원방안

○ 진행순서

사회 : 윤준병 의원

시간		소요 (분)	주요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0:40	10:42	2'	장내 정리 및 착석	전체공개
10:42	10:45	3'	▪ 참석자 소개 및 기념촬영	
10:45	10:55	10'	[참가자 모두 발언] ▪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발언 ▪ 김성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모두발언	
10:55	11:15	20'	▪ 패널 의견 청취 및 자유 토론	
11:15	11:20	5'	▪ 박홍근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